

전통 궁궐건축을 통해 본 한중일 의장문화 비교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Design Elements in Traditional Palaces of Korea, China and Japan

이현정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학과 강사, 이학박사

박영순

연세대학교 생활디자인학과 교수, 이학박사

Lee, Hyun-Jung

Dept. of Human Environment

Park, Young-Soon

Dept. of Human Environment

1. 연구의 목적

새로운 문화 시대의 대두와 동아시아의 문화적 역할 증대는 한국 문화의 위상과 정체성 확립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조형의 기본인 의장, 특히 색채와 재료, 문양을 중심으로 실제 조사를 통해 유사한 한,중,일 삼국 문화 속에서 공통성과 차별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한국 의장 문화의 정체성을 규명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연구의 방법

연구는 문헌 조사와 현지 답사 조사를 함께 진행하였으며 조사의 대상이 된 한,중,일의 궁궐은 창덕궁, 자금성, 니조성이다. 문헌조사를 통해 한,중,일 삼국의 사상체계와 민족정신을 파악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삼국의 건축 문화의 특성을 파악했다. 현지답사조사를 위한 의장 조사 분석틀로서 기본이 되는 건축 구성 요소를 지붕부, 벽체부, 기단부, 외부 구성요소로 분류하였으며, 색채 분석 도구로는 NCS 시스템을 기본으로 hue&tone palette와 image scale을 병행하여 사용하였다. 재료 분석을 위해서는 한국 전통 재료를 기준으로 재료의 종류와 가공 방법을 분류한 박영순 외(2000)에 따라 각 건축 재료의 분류 기준을 재료의 종류와 성형 처리 방법 및 표면 질감으로 나누어 정리하였고, 문양분석의 기준은 한국의 문양과 상징을 기준으로 실제적 모티브와 상징적 모티브로 분류한 뒤, 각 문양별 종류와 횡수, 장식성의 정도를 파악하고 이를 중국과 일본 문양과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밝히는 것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3. 한, 중, 일 삼국의 의장 문화

한,중,일 삼국의 의장 문화의 근간을 이루는 정신은 자연 친화 사상과 조화론, 유교 문화이며 이러한 사상적 기반은 건축에 있어서 자연과의 상생관계를 고려한 공간, 음양조화와 풍수에 의한 조형, 내외부의 중첩과 상호관입, 목조 가구식 건축 등의 공유된 특성을 낳았다. 이러한 건축적 배경 위에 조성된 의장은 삼국 문화의 뿌리 깊은 자연 친화 사상으로 인하여 자연 재료의 사용, 자연색 계열을 이용한 색채, 자연 모티브에서 출발한 문양 등의 공통 특성을 갖고 있으며 미의식의 발로를 제어하고 목적이 있는 부채만을 인정한 유교문화를 위하여 있어 수순장식을 위한 것이 적고 지붕부의 기능을 겸한 문양을 증가케 했

다. 각 국은 나름의 독특한 문화로 인해 건축과 의장의 각 영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인본주의의 영향이 가장 크고, 중국에서는 중화사상, 일본에서는 집단 주의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나 각 국의 가장 중요한 문화임을 알 수 있다.

3. 1. 한국의 의장 문화

중국과 일본의 중간 지역에 위치하면서 문화의 많은 부분도 두 나라의 중간적 성격을 띠고 있다고 생각되어 온 한국의 의장 문화 특성은 자연적 가공도가 높고 거친 질감이 많은 재료 특성과 따뜻하고 부드러운 색채로 색의 다양하고 미묘한 변화를 즐기며 유사배색을 주로 하는 색채 특성으로 나타난다. 또한 문양에 있어서는 부드럽고 도톰한 선으로 소박한 인간미를 표현하는데 주력하고 있어 삼국 중 문양의 완성도는 가장 떨어지나 생동감은 가장 충만해있다. 이러한 의장적 특성은 자연 순응적인 공간 배치와 선적 구성과 유연성을 중시하는 공간 조직 등의 특성을 가진 건축적 배경 위에 조성되었다. 한국의 의장 문화는 그 재료적 면에 있어서는 주로 풍토와 자연친화, 조화론, 유교적 상고주의 등의 한중일 공통 사상과 한국인들의 특성인 현세 중심의 세계관, 중용의 미, 인본 주의에서 비롯되었다. 한국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자연스러운 느낌의 색채는 풍토와 자연친화사상, 조화론에서 비롯된 것이며 생동감있는 소박함으로 대범성과 해학을 나타내는 한국의 문양은 자연친화 사상과 조화론, 유교 사상을 근거로 인본 주의가 특징적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즉, 한국의 의장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움과 부드러움, 소박함 등의 특징은 뿌리 깊은 자연 친화 사상과 조화론, 인본 주의 등의 발현으로 파악된다. 조사 대상이 된 조선 시대는 그 이전 시기와 비교해 볼 때, 의장에 있어서의 세련된 장식미는 확연히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한 기술의 조악함에서 그치지 않고 실용성과 예술성을 조화시키고 인간의 관점에서 해석하여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추구하고 의장에 생명을 부여하는 근본적 자연 친화 사상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 있어서의 자연 친화 사상은 반드시 인간이 함께 있는 개념으로서 자연 속에 인간의 행위로 이룬 건축 또는 의장을 부여하고 그것을 인간이 자연과 함께 즐길 때에 비로소 온전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의장은 불완전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

는 자연과의 조화를 통하여 완성된다.

3.2. 중국의 의장문화

동아시아 문화의 원류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의장 문화는 재료에 있어서 인위적 가공도가 가장 높으며 매끄럽고 단단한 표면 질감을 즐긴다. 색채에 있어서는 다양하고 화려한 색채와 대비배색을 주로 하며 문양과 장식에서는 사실적 묘사와 양감이 풍부하고 세밀 묘사로 장식적이다. 이러한 의장 특성은 엄격한 좌우대칭과 폐쇄적 공간 구성을 중시한 중국 건축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중화 사상에 의한 영향이 크다. 주된 사상적 기반은 재료 특성은 주로 풍토와 자연친화, 조화론, 유교적 상고주의 등의 동아시아의 공통 사상과 중국인들의 특성인 순자연적 세계관, 중화사상, 상대론적 세계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또한 중국의 화려하고 다양한 색채 사용은 풍토와 중화사상, 조화론, 상대론적 세계관에서 비롯된 것이며 사실적이며 섬세하고 인위적 가공이 많은 문양은 자연친화 사상과 조화론, 유교 사상 등을 근거로 중화사상, 상대론적 세계관 등이 반영되어 나타난 것이다. 이러한 중국의 의장에서 나타나는 다양함과 화려함, 세밀함 등은 도시나 건축에서의 장대한 스케일과 대조를 이루는 개념으로서 상대적인 것이 반드시 존재하며 그것이 자연의 이치라고 생각하는 중국인들의 세계관과 구성적이고 과장적 이미지로서 스스로를 뽐내는 듯 표현하는 중국 중심의 사고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된다.

3.3 일본의 의장 문화

중국 문화가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유입되는 과정을 거치며 일본은 문화 발전을 이루었는데, 일본의 의장 문화는 재료 면에서는 인위적 가공도가 높으며 조성된 거친 질감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고, 색채면에서는 차분하고 안정적이며 유사배색을 즐긴다. 문양과 장식에 있어서는 세련된 생략과 축약을 기본으로 기교와 장식을 더하는 이중적 표현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의장은 건축에 있어서의 비대칭 구성과 수평적 전개를 그 특징적 배경으로 삼고 있으며 특히 재료 특성은 한중일의 공통 사상과 일본 문화의 특성인 내외의 엄격한 구분에 의한 집단주의에서 비롯되었다. 특히 인위적 가공을 통해 재료의 자연스러움을 표현하는 기법은 자연에 거스르지 않으려하는 자연 친화의 경향과 개별 재료의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전체가 하나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개념의 집단주의에서 연유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차분하고 안정적인 느낌의 자연스러운 색채는 풍토와 자연친화사상, 조화론, 집단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며 양식화, 세밀화 되어 있고 양면적 성격을 띠고 있는 일본의 문양은 조화론, 집단주의, 음양오행, 우주천문사상, 유교의 충(忠) 사상 등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일본 의장에서 나타나는 차분한 색채와 세련된 조화미는 집단주의의 확장된 개념으로 파악되는데, 자연 속에서 조화를 추구하는 한국의 자연 친화 사상에 비해 일본

의 자연 친화는 자연에 거스르지 않는다는 개념으로 자연과 혼연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연 밑에서 숨죽여 가라앉아 있다. 즉, 세밀한 인위적 조작과 공력을 기울여 자연에 위배되지 않는 가벼운 장식을 세련되게 조성하고 조작된 거친 질감을 만들어 냈으므로 개별 재료 및 문양, 색채의 독자성은 사라지고 전체 자연만이 남게 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4. 결 론

한,중,일 삼국에 나타난 의장 특성은 색채 면에서는 한국이 중국과 일본의 중간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의 색채는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나, 색조면에서는 자연스러운 안정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재료와 문양에서는 한국과 중국이 상대적 성격을 띠고 있으며 일본이 양국의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의 재료와 문양은 가장 자연적이고 추상적이며 중국의 재료와 문양은 가장 인위적이고 사실적이다. 이에 비해 일본의 재료와 문양은 한국과 중국 두 나라의 특성을 모두 지니고 있는 양면성을 띠고 있는데, 가공도가 높을수록 재료 표면이 거칠어지며 문양의 표현이 간략화되는 반비례적 특성이 존재하며 이는 문양 자체에 있어서의 생략과 축약 속의 세밀화라는 양면성과 병립한다. 이는 이전에 진행된 연구에서 당연하게 여겨졌던 한국 문화의 위치 즉, 중국과 일본의 중간적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과는 대치되는 것으로서 이전의 연구가 선을 중심으로 한 형태 위주의 연구가 많았기에 파악되지 않았던 특색으로 보인다. 또한 삼국의 중간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색채는 풍토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임을 생각할 때, 재료의 가공과 문양은 자연적 영향보다는 그를 기반으로 하는 각 민족의 의식과 창의성의 발현으로 파악되는데, 특히 한중일 삼국의 자연 친화 사상의 표현 방식에 연유하는 바가 크다고 사료된다.

참고문헌

- 권영걸(2001), 공간디자인 16강, 도서출판 국체
- 박영순, 전통소재에 의한 한국문화상품의 특성화 연구, 한국디자인진흥원 연구보고서, 2001.
- 주남철, 한국건축의장, 일지사, 1979,.
- 최지연, 전통주택에 사용된 문양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 석사학위논문, 2001.
- jenny de gex, Asian style source book, PERIPLUS, 2001
- Ru Jinghua, Peng Hualing, Palace Architecture, SpringerWiennNewYork, 1998.

본 연구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지원에 의해 이루어짐.